

#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완)

## A Study on the Structural Principle of Madang Based on Korea Traditional Dwelling Space

최동호 / 예전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Ho

### 1.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 2. 마당의 개념

#### 2-1. 마당의 정의

#### 2-2. 채와 마당의 분화

#### 2-3. 마당의 분류

### 3. 전통주거 마당의 구성원리

#### 3-1. 마당구성 특성원리

#### 3-2. 마당구성 원리분석

#### 3-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

### 4. 전통주거 마당의 형태원리

#### 4-1. 마당의 유형분석

#### 4-2. 마당의 형태원리

#### 4-3. 마당의 규모

#### 맺음말

### 4-3. 마당의 規模

마당의 규모는 그 '空間의 範圍'를 알아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그 공간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크기 또한 중요하다. 마당의 실제적인 크기는 물론 공간의 깊이에서 오는 공간감의 체적도 아울러 구하여 보았다. 따라서 마당의 가운데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폐쇄도의 고찰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울러 마당의 규모는 물리적, 심리적인 크기 및 폐쇄도의 2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 1) 마당의 크기

마당의 크기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규모산정의 방법과 기준이 제시된다. 첫째, 과연 전통마당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각 채(棟)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곳의 각각의 마당은 그 채에 속한 적당한 마당의 첫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맞는 크기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런 마당 크기의 기준은 물론 채가 갖고 있는 도리 방향으로의 '고유 間수'와 확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增加치수'<sup>33)</sup>를 가지고 있다.

둘째, 마당의 알맞은 크기는 어떠한가? 정말 '감동적인 마당' 적당한 마당의 크기와는 다른-의 규모를 찾는 일이다. 쓸데없이 큰 공간보다는 오히려 작은 장소에서 더욱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構造的인 空間性'을 말함이다. 그 규모는 물리적인 길이의 치수뿐만 아니라 공간의 立體的인 境界까지를 포함한 그 周邊을 둘러싼 總體的인 範圍의 전부를 말해야 한다. 그러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안마당의 경우에는 대청 앞에 몇간이나 열려진 부분이 있는지(대청과 뒷마당이 서로 통할수 있도록 전부 열려진 부분)를 파악해 보아야 한다. 마당 크기 산출에 있어서 (안)마당에 면한 가로(폭) 및 세로(깊이)길이는 채(棟)가 갖고 있는 間수로 마당공간의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만약 정면 3間的 마당의 폭을 가지고 있다면 대청을(남쪽지방으로 내려 갈수록 대청마루가 중심이 되

33) 金鴻植, "朝鮮末期 陽宅畫에 나타난 民家의 間집이 方法論에 대한 研究", 한양대 박론, 1988(이 논문에서는 가장 많은 間수의 집은 8-9간 집이라고 한다).

므로) 바라보았을 때 대청의 柱間이 3間이다. 즉 폭×깊이의 크기는 대청의 전체 柱間×대청과 ㄱ자로 꺾인 방 등의 각각의 길이로 그 基準을 삼았다.

또한 마당의 전체 크기는 기단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실제적인 마당만의 가로 세로의 길이는 기단폭을 빼고난 치수이어야 한다. 그러나 기단이 보통 화강석으로 되어있고 通路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당의 범주에 일단 넣고 그 크기도 삽입하는 것으로 하였다. 각 체에 속한 마당의 크기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도면 4-4>의 범위를 정하고 그 크기를 구하는데 1) 안마당의 치수상의 크기 2) 대청을 통과하는 공간의 깊이가 얼마인가 하는 열린치수 3) 공간의 체적에서 오는 공간감의 밀도의 크기 등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마당의 규모를 산정하였다. 마당의 심리적으로 느끼는 치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만약 2間크기의 마당이라고 할지라도, 보통 대청마루의 열린진 공간으로 인하여 실제 크기보다도 심리 치수로는 작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당의 구성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체에 의한 6마당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안마당이기 때문에 그 규모에 의해서 다른 마당의 크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 2) 마당의 폐쇄도

마당의 폐쇄도는 인동거리와 건물높이가 측정의 기준이 된다. 즉 D는 인동거리로서 마당 깊이의 1/2에다 체의 半間의 크기를 합한 거리이며 H는 건물의 높이(h1)에서 시선의 높이인 1.5m를 뺀 치수를 말한다. 算式으로 나타내면  $D=d1/2+d2/2$ 과  $H=h1-1.5$  와 같이 된다.

D/H는 폐쇄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 D/H=1/1=1=45° (완전한 폐쇄감을 느끼게 됨),
- D/H=2/1=2=30°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함),
- D/H=3/1=3=18° (최소한의 폐쇄감 지각),
- D/H=4/1=4=14° (개방감을 느낌)라는 기준<sup>34)</sup>이 나올 수 있



<도면 4-4> 마당크기 산정범위 (이원용가옥의 단면도)

게 된다.

D/H=2미만이면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여 D/H=1이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인식하기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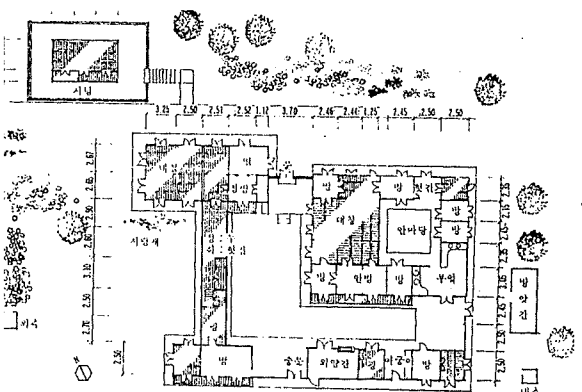
### 3) 마당 규모 算定의 事例

본 研究에서는 口字形 안마당을 갖는 平面과, 전통가옥에서 가장 작은 마당을 소유한 2개의 口字形을 갖는 체를 모델로 하여, 마당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를 3개의 전통 가옥 즉, 義城金氏大宗家, 김기응家屋, 香壇을 선택하여 여섯 마당의 규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선택의 기준은 커를 갖고 있는 마당으로서, 안마당을 통해서 뒷마당이나 사랑마당을 향해 열린 공간을 휘몰아 가는 '회몰리 공간'이 있는 마당을 선별하였다. 일자형 평면과 ㄱ자형을 갖는 가옥의 안마당과, 마당이 1, 2차적으로 공간을 나누어 구획되는 ㄷ자형 체로 (김동수가옥) 형성되는 마당은 넓은 공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의 범위에서 나타나는 '열린 치수'를 갖고 있으며, 공간의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체 가운데 커를 소유한 家屋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마당의 구성원리에서 영역상의 체는 6개로 나누며 그속에 11체가 속한 것으로 나누었고, 마당의 공간은 6체(棟)領域이기 때문에 물론 여섯마당의 주마당 속에 16개의 畵마당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 (1) 義成金氏大宗家

이 가옥의 마당은 여섯마당의 형태로 보았을 때 4마당(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사당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채의 영역에 이루어지는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의 畵마당과, 사랑채 주위의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의 5가지 마당이 있으며, 행랑채 안으로는 행

34) Spreiregen, 1965, 75쪽(Spreiregen의 관찰자와 수평거리와의 높이관계의 圖式에서 引用)  
 35) 연장치수를 구할때 그 열린대상이 뒷마당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향단의 경우에는 사랑마당이 열린대상이 되어 총길이의 마당의 열린치수를 느끼게 되는 것은 25.51m나 된다. 그러므로 열린대상의 끝부분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연장치수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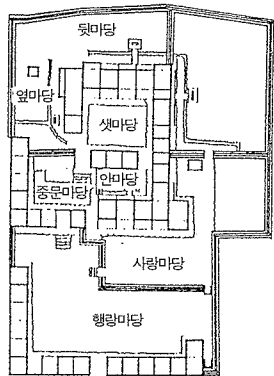
<도면 4-5> 의성김씨 대종가 배치도

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의 부속마당이 3개소이고, 사당채에는 1개소의 마당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12개소의 마당공간이 형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안마당의 크기는(대청을 바라보았을때) 폭과 깊이가 7.03×5.97m로서 칸수는 3×2.5칸이 된다. 마당면적은 41.97m<sup>2</sup>(12.70평)로서 가로와 세로의 비는 1:1.18이다.

안마당은 그 유형이 경기형의 ㅁ자형으로 유형7에 속한다. 마당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는데 비하여 대청의 열린진 間수가 3間으로서 공간감의 깊이를 구하면, 안마당에서 대청을 향해 보았을 때 마당의 깊이(5.97m), 채(안대청)의 깊이(6.64m), 사랑안마당 깊이(7.61m)를 더하면 무려 20.22m가 된다.

이것은 5.97m의 안마당의 깊이가 주는 물리적인 '고정치수' 보다 심리적인 '열린치수'는 14.25m가 더 연장된 것으로서 2.39배의 열린치수가 나온다. 이 열린치수는 다시 마당의 바둑에서 처마끝까지의 높이인 3.83m에다 마당의 폭인 7.03m를 곱하면 26.92m<sup>2</sup>가 되므로 다시 열린치수인 20.22m로 체적을 구하면 544.32m<sup>3</sup>의 立方體의 空間 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열린공간에서 나오는 치수는 '휘모리 공간성'이 갖는 한국전통주거 공간의 특성이며 안마당의 규모는 물리적인 치수만이 아니라, 이러한 단면적인 공간성의 범위까지 연장된 부분의 크기까지도 보아야 한다. 이 가옥의 폐쇄도(D/H)는 안마당의 경우는  $D=d1/2+d2/2=2.95+3.285=6.235$ 고  $H=h1-1.5=7.12-1.5=5.62$ 이므로  $D/H=6.235/5.62=1.11 < 2$ 이므로 심리적으로 폐쇄감을 느끼는 안마당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대청의 열린공간의 길이는 20.22m로서 폐쇄도가 1이라고 하더라도 확장된 열린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치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도면4-6〉 김기응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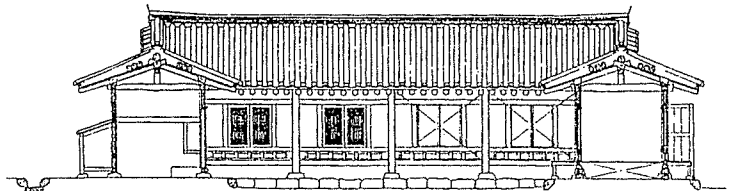
## (2) 김기응 家屋

이 가옥의 안마당에서 보면 대청 뒤로 뒷마당이 전개되고 있다. 이 부분은 의성김씨 대종가가 대청후면에 사랑채의 마당이 있는 것과 다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기응 가옥은 채와 담장에 의해서 '분명한 區劃'을 가진 마당이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그 모양이 대체적으로 四角形에 가깝고 쉽게 한 눈으로 볼 수 있으며 位階秩序가 뚜렷하다. 공간의 영역을 살펴보면 6마당의 구분으로 볼 때 3개소의 주마당(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을 가지고 있으며 副마당은 12개(후정과 정원 포함)에 이르고 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공간구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게 보여진다. 채의 구성은 행랑채 領域에 행랑채, 중문채, 곳간채와 사랑채 영역과, 안채의 영역으로서 모두 5채로 되어 있고 연속성에 의해서 마당이 배치되어 있다. 채에 의한 마당의 구분을 살펴보면 안채에는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후원이 확실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사랑채에는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사랑뒷마당, 셋마당, 정원이 채에 의한 분명한 구역을 자리하고 있으며, 행랑채에는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열두마당으로 이 가옥은 확실한 境界를 가지고 구분되어 있다.

마당의 크기<sup>36)</sup>를 살펴보면 행랑채영역은 행랑채의 마당은 동서로 25m, 남북으로 15m(장변), 8m(단변)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중문마당은 8×7m로서 장방형의 구조이다. 사랑채 영역의 사랑마당은 전면부의 15×7m의 장방형 공간(후면의 ㄱ자공간 제외)을 가지고 있으며 셋마당은 6×3.5m의 장방형이다. 안채영역은 4개의 副마당을 가지며(후정포함) 공간이 구성되어 있다. 안채는 ㅁ자형의 평면으로 4면이 안채와 곳간채로 둘러 싸여져 있고 안마당의 크기는 10×7m로서 4×3 칸이 되며 가로 세로의 비율은 1:1.43이 되어 정방형에 가까운 형태비인 1:1.5를 넘지 않는다. 옆마당은 12×6m의 장방형으로 뒷마당(22×7m)과 연속되며 후정은 15×20m의 장방형으로 되어 있다.

안마당에서 보는 안대청은 의성김씨 대종가

36) 延世大 東洋建築研究室, "괴산 김기응 家屋", 1987, 78쪽부터 84쪽.



〈도면4-7〉 김기응가옥 안마당 단면도

〈표 4-4〉 안마당의 크기

家屋	內 容	전체 마당 수	안마당 크기와 비					圖面出處	
			가로 (폭)	세로 (깊이)	間數	마당 面積			가로세로 비
						(㎡)	(평)		
01	義成金氏大宗家	12	7.03	5.97	3×2.5	41.97	12.70	1:1.8	한국건축양식론
02	義成金氏小宗家	9	11.88/6.68	7.47/3.82	5×4.5	114.26	34.56	1:1.59/1.75	한국주택건축
03	忠孝堂	11	13.08	9.85	5×4	128.84	38.97	1:1.33	한국건축양식론
04	養眞堂	10	13.18	9.97	5×4	131.40	39.75	1:1.32	한국건축양식론
05	北村宅	10	10.71	10.24	4×3.5	109.67	33.18	1:1.05	하회마을조사보고서
06	臨淸閣	15	6.30	6.24	2×2	39.31	11.89	1:1.01	한국건축양식론
07	金東周家屋	9	8.00	9.52	3×4	76.16	23.04	1:1.19	한국건축양식론
08	禮安李氏宗家	9	9.94	6.61	4×3	65.70	19.86	1:1.50	한국건축양식론
09	醴泉權氏宗家	13	7.44	4.98	3×2	37.05	11.21	1:1.49	문화재수리보고서
10	獨樂堂	14	13.17	10.23	5×4	134.73	40.76	1:1.30	문화재수리보고서
11	觀稼亭	10	7.73	6.67	3×3	51.56	15.60	1:1.16	한국건축양식론
12	孫東滿家屋	11	7.55	7.27	3×3	54.89	16.60	1:1.04	한국건축양식론
13	香壇	11	5.09	4.42	2×2	22.50	6.81	1:1.15	한국건축양식론
14	무첨당	10	10.60	9.70	5×2	102.82	31.10	1:1.09	문화재수리보고서
15	낙선당	10	10.32	8.73	4×3.5	90.09	27.25	1:1.18	문화재수리보고서
16	이원옹가옥	7	8.10	7.20	3×3	58.32	17.64	1:1.13	문화재수리보고서
17	이희태가옥	8	10.42	9.72	4×4	101.28	30.64	1:1.07	문화재수리보고서
18	鄭在永家屋	13	7.55	8.18	3×3	61.76	18.68	1:1.08	한국건축양식론
19	朴愼家屋	13	10.10	7.37	4×3	74.44	22.52	1:1.37	한국주택건축
20	鄭玟鶴家屋	12	8.10	20.20	7.5×4.5	163.62	49.50	1:2.49	문화재수리보고서
21	金東洙가옥	14	7.35	4.90	3×2	36.02	10.89	1:1.50	문화재수리보고서
22	윤선도가옥	11	9.30	15.00	3×4.5	139.5	42.20	1:1.61	선우정원논문
23	雲鳥樓	14	9.70	12.42	4×5	120.47	36.44	1:1.28	한국건축양식론
24	김기응가옥	12	10.00	7.00	4×3	70.00	21.18	1:1.43	연세대(동양건축연구실)
25	秋史古宅	11	7.47	7.47	3×3	55.80	16.88	1:1	문화재수리보고서
26	孟氏杏壇	10				불완전한 마당 형상			문화재수리보고서
27	尹拯古宅	13	9.69	8.29	4×3	80.33	24.30	1:1.17	문화재수리보고서
28	霽月堂	11	8.00	4.40	6×3.5	35.20	10.65	1:1.82	한국주택건축
29	同春堂	11	7.20	7.20	3×3	51.84	15.68	1:1	한국주택건축
30	船橋莊	15	10.00	8.98	4×4	89.80	27.16	1:1.11	한국건축양식론
31	臨境堂	13	6.50	8.84	3×3	57.46	17.38	1:1.36	한국주택건축
32	宮집	12	9.76	7.32	4×3	71.44	21.61	1:1.33	문화재수리보고서
33	呂卿九家屋	12	8.40	8.40	3.5×3.5	70.56	21.34	1:1	문화재수리보고서
34	金榮龜家屋	11	11.25	12.25	5×5	137.81	41.69	1:1.09	문화재수리보고서
35	演慶堂	13	19.56/12.23	21.17/2.78	5×1	448.09	135.55	1:1.08/4.40	한국건축양식론

〈표 4-5〉 間數로 본 마당의 크기

가로 세로 間數	2	3	3.5	4	5	6
1.5					演慶堂	
2	香壇, 臨淸閣	예천권씨 종택, 金東洙家屋				
2.5		의성김씨 대종가				
3		觀稼亭, 孫東滿家屋 이원옹가옥, 鄭在永家屋 秋史古宅, 同春堂, 臨境堂	宮집	예안이씨 종택, 박황가옥 김기응가옥, 윤중고택 낙선당, 이희태家屋	무첨당	
3.5			呂卿九家屋	北村宅		제월당
4		金東周가옥		船橋莊	忠孝堂, 養眞堂, 獨樂堂	
4.5		尹善道家屋			의성김씨 소종가	
5				雲鳥樓	金榮龜家屋	

의 3間이 모두 열려 있는 것과는 달리 네間중에서 2間만이開放되어 있다. 그러나 뒷마당과 후속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당은 깊은 처수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공간의 깊이는 마당의 깊이(7.0m), 대청의 깊이(반간의 퇴의 치수 포함하여 3.82m), 안채의 뒷마당깊이(7.0m)를 모두 합하면 17.82m가 되는 열린치수가 나온다. 마당의 깊이가 7m인 점을 감안하면 2.55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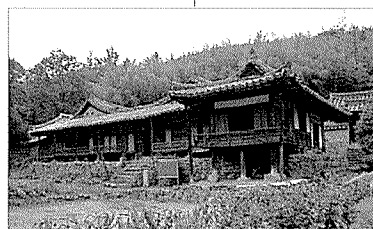
의 확장된 열린공간이 더 생기는 것이다. 다음 공간의 밀도는 안마당에서 뒷마당까지 열린 대청의 柱間 폭은 10.0m이고 처마높이가 2.3m이므로 23.00㎡가 되므로 열린치수의 17.82m를 곱하면 409.86㎡의 密度로서 공간의 부피를 갖는 체적의 크기가 나온다. 이곳에서도 안마당의 크기가 10×7m라는 규모로서는 공간의 범위를 알 수 있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표 4-6〉 마당구성 특성원리 사례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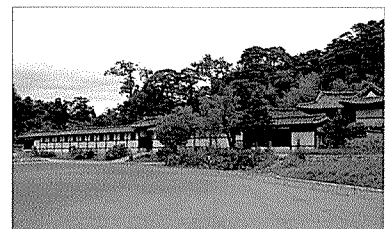
區分	家屋	1) 獨樂堂	2) 정재영가옥	3) 船橋莊	
位 置		慶北 慶州郡 安康邑	慶北 永川郡 臨阜面	강원 강릉시 운정동	
年代 / 平面型		16세기초/ 口字形	18세기 중반/ 口字形	19c초/ ㄱ자형	
間數 / 立地類型		50間/ 평지, 냇가	30間/ 산기슭 경사지	55間/ 산기슭	
마당 구성	채의 構成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사당	안채+사랑채+행랑채+고방채+사당	안채+사랑채+행랑+별당채+사당	
	6마당構成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안마당+사랑+행랑+고방+사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6마당形(전체마당수)	5마당 2형(14)	5마당 1형(13)	5마당 2형(15)	
마당 유형	안마당	유형7 (口字形)	유형7 (口字形)	유형6 (ㄱ자형)	
	사랑마당	유형3 (3면 개방형)	유형3 (3면개방형)	유형5 (사방형)	
	행랑마당	유형2 (전면형)	유형2 (전면형)	유형4 (후면복합형)	
마당	행랑마당	행랑마당	○ 행랑마당은 前面型으로 행랑채 앞에 마당이 구성되고 있으며 동편으로 供需間마당이 사방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관리인이 산다.	○ 32짜리 솥을 대문을 지나 들어가면 매우 큰 행랑마당이 전개된다. 마당은 유형2로서 전면형이다.	○ 행랑채가 하나의 커다란 입면을 이루며 행랑마당은 유형4의 후면복합형이다.
		곶간마당	○ 이 사방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관리인이 산다.	○	○
		중문마당	○ 산다.	○	○
	사랑마당	사랑마당	○ 사랑마당은 3면 개방형으로 되어 있고 독립당의 담장은 냇가와 면하는 부분이 일부 열려있어 공간의 확장을 꾀하며 열린공간의 극대화를 뒷편의 계정과 아우러지게 하고 있는 매우 아늑한 공간을 연출하고 있는 곳이다.	○ 사랑방, 큰사랑방, 마루, 책방으로 구성되는 사랑채는 사랑마당이 3면 개방형으로 동남에 위치한다.	○ 사랑채인 열화당은 별도의 채로 독립되어 있으며 사방형으로 마당을 구성한다.
		사랑옆마당	○	○	○
		사랑뒷마당	○	○	○
셋마당		○	○	○	
특마당	안마당	○ 안마당은 뒷마당과의 열린공간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마당의 크기는 134.73㎡(40.76평)로서 다른 것과 비교해 비교적 큰편이다.	○ 안마당은 유형7의 口字形으로서 3×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당의 크기는 61.76㎡(18.68평)이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08로서 거의 정방형에 가깝다.	○ 동별당과 이어지는 안채의 안마당은 ㄱ자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서별당은 소실되었다.	
	옆마당	○	○	○	
	뒷마당	○	○	○	
	庭園	○	○	○	
성별당마당	庫堂 마당		○ 현재는 그 모습이 없지만 과거에는 고방채가 뚜렷하게 대문의 양측면에 있었으며, 고방마당이 고방채의 전면에 구성되었다.	○	
	별당마당	계정의 정지마당은 앞뒤로 열려있고, 냇가와 전면은 통해있어 앞마당이 시냇가의 물이 된다.	○	○ 정자인 활래정은 진입구인 비갈마당에 위치하며 전면에 연못을 둔.	
	亭子	○ 이 된다.	○	○	
	祠堂마당	○ 사당앞에 매우작은 轉移마당	○ 사당마당은 回字形	○ 별도의 사당마당으로 사방형	



獨樂堂 계정



정재영가옥



船橋莊

열린공간으로 인한 공간의 깊이와 밀도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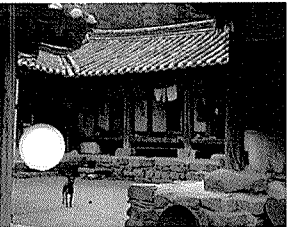
이 가옥의 폐쇄도는 안마당에서

$$D = d1/2 + d2/2 = 3.5 + 1.91 = 5.41 \text{ 이고}$$

$H = h1 - 1.5 = 4.7 - 1.5 = 3.2$ 이므로  $D/H = 5.41/3.2 = 1.69$ 가 되어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D/H = 2/1 = 2$ ) 기준과 완전 폐쇄감의 중간에 있다. 그러나 이런 계산적인 수치는 전통주거

에서 나타나는 열린공간으로 解決되는 것으로서 뒷마당까지의 연결된 열린치수가 15m 이상이 되므로 답답함이 없다고 ( $D/H = 15.20/3.2 = 4.75$ ) 본다. □자형의 안마당으로 내부 자체만을 볼 때는 폐쇄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D/H = 1$ 에서 2까지의 수치가 나오는 것이 열린공간의 밀도로서 오히려 開放感을 주고 있다.

4) 朴湜가옥	5) 鄭炳鎬가옥	6) 金東洙가옥	7) 雲鳥樓
慶北  달성郡 하빈면	慶南 咸陽郡 池谷面	全北  정읍군 산외면	全南  求禮郡 土旨面
1747년/ ㄱ자형	18c/ 一자형	1784년/ ㄷ자형	1776/ □자형
37間/ 平地	間/ 平地	75間/ 平地	55間/ 平地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	안채+사랑채+행랑채+별당+사당	안채+사랑채(2)+행랑채+사당	안채+사랑채(3)+행랑채+사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	안마당+사랑+행랑+별당+사당	안마당+사랑+행랑+사당	안마당+사랑+행랑+사당
4마당 1형 (13마당)	5마당 2형(12)	4마당 3형(14)	4마당 3형(14)
유형7 (□자형)	유형8 (ㄷ자형)	유형6 (ㄷ자형)	유형7 (□자형)
유형2 (2면 개방형)	유형4 (3면 개방형)	유형5 (사방형)	유형3 (3면개방형)
유형4 (후면복합형)	유형2(전면형)	유형6(전후면복합형)	유형4 (후면복합형)
○ 행랑마당은 사랑마당과 복합으로 사용 되는 유형4이다.	○ 별동의 공간체를 두고 행랑마당과 공간 마당이 붙어있다. 또한 안마당과 옆에 위치하여 있다.	○ 각 채는 分散型으로 독립된 채로 흐트러 놓았다. 행랑마당은 사랑채와 혼용되기는 하지만 안행랑채가 있기에 前後面複合型이다.	○ 행랑마당은 후면 복합형이고 바깥마당의 물을 지나야 대문을 들어서게 되어 큰 행랑마당과 만난다.
○ 사랑마당은 사랑채가 전면에 노출되고 유형은 2면 開放형이다. 대청의 모서리 부분이 별당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다.	○ 사랑마당은 사랑채 앞마당 끝 담장아래에 石假山을 造苑해 놓았다. 보통은 후원에 만드나 이 사랑채는 내려다 보게해 즐길 수 있게 하였다. 사랑마당의 3면 개방형으로 前退를 두었다.	○ 사랑마당은 별동의 사랑채 주위로서 사방형의 類型이다. 전체 대지의 크기가 동서 65m, 남북 73m로써 각각의 채와 함께 마당은 넓은 구역을 갖고 있다.	○ 사랑채는 원래 안사랑, 작은사랑, 큰사랑의 모두 3개의 사랑채를 구성한다. 운조루의 사랑마당은 3면 개방형으로 루마루로 되어 있다.
○ 안마당만은 ㄱ자형으로서 전체 형태는 안채와 사랑채가 서로 ㄱ자와 ㄴ자를 이루면서 전체는 □자형을 이루고 있다.	○ 안마당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랑채의 옆을 지나 중문을 통과해야 한다. 안마당은 구자형이 아니고 트여 있으며 마당면적은 구자형과는 달리 크게 163.62㎡ (49.50평) 나타난다.	○ 안채의 평면이 ㄷ자형으로 되어 있지만 마당의 구성은 □자형과 일자형을 갖는다. 안채의 구자형은 3×2間으로서 36.02㎡(10.89평)의 面積을 갖는다.	○ 안마당의 크기는 120.47㎡(36.44평)으로서 작지않은 크기를 갖고 있으며 가로 세로의 비는 1:1.28이다.
○ 별당마당은 하업정의 별당채를 두고 있으며 마당의 구성은 사랑이며 前面은 봉래산상을 두었으며 누마루를 두어 마당 공간을 확대함	○ 별당마당은 안채의 뒷편으로 두었다. ○ 사당마당은 안채뒤에 四方型구성	○ 사당마당은 안채우측으로 四方형	○ 현재는 별당이 없지만 3면개방형의 마당을 구성하였다. ○ 사당입구에 轉轉移마당 형성



朴湜가옥



鄭炳鎬가옥



金東洙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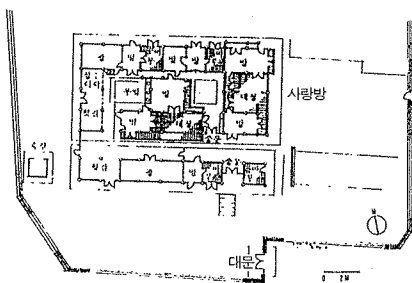


雲鳥樓

### (3) 香壇

月字型的平面構成을 하고 있는 이 주택은 안마당이 2×2間으로 전통주거 가운데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마당을 소유하고 있다. 몸체인 주요 3채(행랑채, 사랑채, 안채)가 1棟形式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형으로, 여섯마당의 분류로는 세마당(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이 자리하며 채에 속한 영역별로는 행랑채에 행랑마당, 곳간마당, 중문마당이, 사랑채에 사랑마당, 사랑옆마당, 셋마당이, 안채에는 안마당, 옆마당, 뒷마당 등(정원, 후정)이 있어서 모두 11개소의 마당이 된다.

안마당의 크기는 가로가 5.04m이고 세로는 4.38m로서 가로 세로의 비는 1:1.5가 되는 거의 正方形에 가까운 마당이다. 이 마당은 물리적인 크기로서는 매우 작지만 그러나 사랑대청 2間(5.04m)의 내부공간과 바로 외부의 열린공간이 맞닿아 연속되기 때문에 심리적인 느낌은 그렇게 협소하게 보이지 않는다. 안마당은 사랑마당 사이에 사랑채라는 '공간의 켜'를 갖고 있으며 이 공간 속의 공간이(안마당에서 사랑마당을 보면)라는 이중코드로써 물리적인 첫수를 극복하고 있다. 즉 한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의 휘돌아 가는 공간성을 내포하고 있다. 안마당에서 사랑대청으로 보는 열린공간의 치수를 살펴보면, 마당의 깊이 4.42m와 사랑채의 보방향의 깊이 5.09m, 그리고 사랑마당의 깊이 약 16m를 더하면 25.51m가 된다. 이 열린공간의 수치는 마당의 깊이보다 5.77배의 깊이를 더한 것으로써 연장된 치수는 25.51m가 된다. 향단이 갖고 있는 안마당의 두間×두間的 間數의 크기는 이 열린공간의 치수까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다음 공간의 밀도감을 구하면, 마당 폭(5.09m), 처마높이(기단과 마루 높이를 뺀치수인 2.2m), 열린치수(25.51m)를 곱하면 285.77㎡의 체적을 갖는다. 안마당의 공간 폐쇄도를 살펴보면 D의 계수는  $D=d1/2+d2/2=2.21+2.55=4.76$ 이 나오고  $H=h1-1.5=5.58-1.5=4.08$ 가 되므로  $D/H=4.76/4.08=1.17 < 2$ 가 되어 폐쇄도의 계수인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으므로 대단히 폐쇄감을 느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면4-8> 향단 배치도

공간의 폐쇄도는 나타나는 수치보다 한국전통 가옥에서 느끼는 열린공간의 깊이인 25.51m의 길이로 작은 공간을 오히려 큰 느낌으로 확대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마당의 사례분석 종합

한국 전통주거 공간안에서 마당의 구성원리는 대단히 복잡한 樣態를 지니고 있다. 첫째, 마당의 분류 형태로는, 마당은 6마당으로서 주마당이 되며 그속에 副마당은 12개소가 되어 모두 16마당으로 分類된다. 둘째, 채와 마당의 관련성으로 보면, 채의 영역성에서 채는 6채로 구분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11채가 구성되어서 모두 41.5개의 마당과 관련이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이렇듯 채와 마당의 복잡한 관계는 다시 6마당의 패턴체계를 나누어 볼 때, 한마당은 4가지의 형과, 두마당은 2가지형, 세마당은 2가지형, 네마당은 4가지형, 다섯마당은 3가지형, 여섯마당은 기본형을 가지는 체계를 가지며 모두 15형태의 마당패턴을 가지고 있다.

마당의 구성원리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례조사를 하였다. 1) 마당의 특성원리는 어떠한가? 2) 마당은 구조적으로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가? 3) 채와 마당의 구성원리는 어떤질서를 갖고 있는가? 4) 마당은 어떤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가? 5) 마당의 형태원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가? 6) 마당은 어느정도 크기를 소유하며 그 폐쇄도는 어떠한가?

사례분석 종합을 통한 마당 구조 원리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켜를 조절공간으로 이용하여 마당구성에서 작은공간을 크게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한다.

② 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각 마당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동선체계를 구축하기로 한다.

③ 마당의 類型分析에서 나타나는 안채의 안마당의 口字型(또는 扌口字型)을 發展 시키고 그 형태를 응용한다. 그외에 사랑채 및 기타 마당을 활용시키는 계획도 반영한다.

④ 마당의 규모에서는 적당한 크기를 현대건축 속에 응용하는 지표로 삼는다.

마당의 크기를 다시 정리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안마당 가운데에서, 작은 마당에서는 향단이 22.50㎡(6.81평)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예천권씨 종택 37.05㎡(11.21평), 임청각 39.31㎡(11.89평) 순으로 나타났다. 큰 안마당의 순서를 보면 口자형의 마당형태중에서 정병호가옥이 163.62㎡(49.40평)로 제일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자형 채에서는 연경당이 448.09㎡(135.55평)로서 가장 큰 것으로

分析되었다. 안마당의 크기의 평균치수로는 81.11㎡(24.54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평균값이 적절한 치수로 보기에는 어렵고 마당이 작다고 하더라도 향단의 열림 치수가 작은 면적의 마당에 면하여 있으면 작은면적+열린치수가 되어 오히려 적절한 공간이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마당의 間數를 종합해 보면 대청과 가로로 면한 마당 쪽의 間數를 작은 순으로 봤을 때, 2間 규모로는 향단, 임청각이며, 세로의 깊이에 면한 마당은 2間이 향단, 임청각, 예천권씨 종택이다. 또 김동수가족은 마당의 규모는 크지만 間數는 2間으로 나타났고, 의성김씨 증가댁이 2.5間的 순으로 되어 있었다. 전체의 마당의 間數는 평균 3.88間(쪽)×3.28間으로 나타났다. 마당의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間數를 규모별로 整理하면 <표4-5>와 같다.

표에서 나타났듯이 마당 공간의 間數로 볼 때 3×3 間的 가옥이 7가옥으로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이 4×3 間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맺음말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서 나타나는 마당의 내용은 대단히 복잡한 구성원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期間내에 그 체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을 갖고 내려온 歷史의 마당이라고 하는 거대함이 내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당을 단순한 외부공간으로만 보려는 시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마당은 채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것으로서 즉 안마당은 안채와 안마당을,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사랑마당을 한데 묶어서 그 구조의 특성을 살펴봐야 한다. 마당 구성원리 중에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마당의 構成 原理 속에는 복잡한 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마당의 特性原理에는 軸의 원리(대청, 마당, 중문), 공간의 연속성, 커를 갖고 있는 공간의 二重的 코드가 있다. 또한 이원성의 多樣性 공간을 소유하고 自然과의 調和性 공간이라는 점 등이다. 특히 대청이라는 커의 공간은 마당과 항상 면해 있는 부분(안마당+대청+뒷마당)으로 결합되어 있다.

둘째, 마당은 여섯마당으로 分類되며 각 마당은 기본형을 2개 또는 3개의 형을 갖는 구조를 이룬다. 또한 구성 형식에서는 16개의 形으로 나뉘지면서 채와 마당이 어우러진다.

셋째, 채와 마당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6채의 영역속에 11개로 분화된 독립된 채가 있으며 이 채는 다시 행랑마당에서 사랑마당까지 16마당의 각 기능을 갖고 있다. 관련구조의 상관성은 사랑채가 15.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마당의 形態原理에서는 유형과 형태원리, 그리고 마당의 규모가 결과치로 나타났다.

첫째, 마당의 유형 分析에서는 주요 3채인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의 마당의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안채는 민가형과 경기형으로 나누어지나 대체적으로 안마당의 구성은 口자형이 많으며, 사랑채는 단순형과 별동형으로 나누어진다. 또 기본형에서 시작하여 전면형, 2면 개방형, 3면 개방형, 4방향 등으로 되어 그 유형이 6가지로 분류됨을 알 수 있다. 행랑마당은 후면형의 기본으로 모두 6가지 패턴으로 발생하며 그 형은 전면형, 전면특형, 後面 복합형, 前面 복합형, 前面後面 복합형으로 세분되고 있다.

둘째, 마당의 형태원리에서는 안마당의 가로 세로의 비가 의성김씨 대종가는 1:1.18이고 충효당은 1:1.32, 향단은 1:1.15로 되어 대체적으로 1:1.5의 범위 안에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셋째, 마당의 규모에서는, 안마당의 크기로는 가장 작은 마당을 가진 향단으로 22.50㎡(6.81평)로 나타났고, 대체적으로 평균 마당의 크기는 81.11㎡(24.54평)가 되었다. 마당의 크기는 柱間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대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스판의 크기와 관련된다고 본다. 현대 건축에서 適用한다면 傳統建築의 3×3間이면 현대에서는 한(1)間×한(1)間(한 스판을 6m라고 가정하면)이나 1.5間×1.5間的 규모일 것이다. 마당의 폐쇄도는 D/H=1.5내외의 범위안에 있으며, 안대청의 마루에서 보이는 열린치수의 공간의 크기는 마당의 전체크기를 포함하여 20여 m의 길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당의 間數는 3×3間的 관가정, 손동만 가옥, 추사고택 등이며 그 다음이 4×3間인 김기응 가옥, 윤중고택 등으로 되었다. 規模로는 물론 제일 작은 크기의 香壇이 2×2間으로 나타났다. 間數에서도 평균적으로 쪽과 깊이가 3.88間×3.28間으로 나타나서 대체적으로 3~5間×3~5間的 範圍 안에 들어 있다.

이상과 같은 마당 구성원리 중에서 본 연구의 주제인 '마당 구성의 特性 原理'와 '形態 原理'를 알아보았다. 특히 그중에서 마당의 규모가 갖고 있는 적정 크기의 算出과, '열린 공간'의 해석방법은 현대건축에 應用할 하나의 '方法論'이 되는 틀'로써 그 基礎資料의 작은 材料가 될 것으로 본다.